2025년 5월 9일

유틸리티/ESG Analyst 정혜정
hyejung.jung@kbfg.com

원전산업

체코 정부, 원전 계약 승인. 원전 건설 의지 재확인

체코 정부, 26조원 규모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승인

— 체코 정부, 현지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계약을 '가능한 시점'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 이에 따라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국수력원자력과 EDU II (두코바니 II 발전사) 간의 계약이 유효해질 예정. 이러한 승인 절차는 기존 5월 7일 예정되어 있던 계약 체결식에 앞서 내각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

—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으며, 우리는 오늘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함.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나,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으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언. 체코 정부의 적시성 있는 원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

— 한편, 체코전력공사 (CEZ)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힘. CEZ 그룹의 CEO는 '다음 주 행정법원에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발언. EDF가 제기한 한수원의 가격 건에 대해서도 고정 가격 제시가 선정의 핵심 이유였다고 밝혔으며, 건설 중 비용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가격이 중요하다고 언급. "한수원이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가격과 일정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장을 제시했다"는 입장

적시성이 곧 체코 원전의 경제성 좌우

— 체코 정부에게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이 계획된 시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신규 원전은 1) 러시아 및 석탄화력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2) 원전의 경제성은 결국 적시성에서 나오기 때문

— 발주 초기, 일각에서는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제시된 바 있었음.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사업비인 26조원은 체코 정부의 1년 예산이 17.2조원 (-2,714억 코루나, 2024년 기준) 적자라는 점을 감안 시 유의미하게 큰 수준. 현재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상태이나, 사업비의 확대는 체코 원전 정책의 리스크 요인

— 착공이 지연되거나,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겨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결국 경제성을 해치는 주 원인이 됨. 만일 이번 프로젝트의 착공이 지연될 시, 2024년 기준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건설이 시작하는 시점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한편, 공사 기간의 연장은 시공비의 확대와 자금 조달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에 문제 발생 가능. 체코 정부는 원전 사업자 선정 시 보다 싼 가격으로 안정적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단위 비용을 주요 평가요인으로 반영한 바 있으며, 당초 1기만 건설할 예정이었던 계약을 4기로 늘리기도 했음

한국 원전 공급망에 대한 강한 신뢰 재확인

— 이번 체코 정부의 계약 속행 결정과 기자회견에서의 각종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경쟁자 중 한수원의 경제성이 가장 좋은 동시에, 공기의 큰 지연 없이 예정된 시기에 완공할 수 있는 적시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각국은 과거 사례에서 공기에 맞춘 건설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한전기술, 한전KPS 등, 두 가지 조건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원전 공급망 내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직접적 수혜 기대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채권자 채무자인 법인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